

“손흥민 막는 것 쉽지 않아”

‘팀 K리그’ 사령탑 김상식 감독
13일 EPL 토트넘과 맞대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홉스퍼와 맞서는 팀 K리그 사령탑 김상식 전북 현대 감독이 ‘특정왕’ 손흥민을 막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식 감독은 7일 유튜브로 진행된 무방 플레이 시리즈 1차전 팀 K리그 선수 소개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토트넘과) 해볼 만하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각오를 진했다.

코치로 김상식 감독을 보좌하는 수원FC 김도균 감독도 “느낌이 좋다. 현재 K리그에서 가장 활약이 좋은 선수들 대표급 선수들이 있다며 ‘팀 K리그가 3-2 또는 4-3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상대 팀으로 만나는 아시아 최초 EPL 특집왕 손흥민 봉쇄법에 관해서도 전했다.

김상식 감독은 “대인 마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조직적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팀 K리그 선수들의 출전 시간에 대해선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식 감독은 “모든 선수가 소속팀에서 땀 흘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선수들에게 45분씩만 출전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시즌 K리그는 11월 개막하는 2022 카타르월드컵 일정으로 인해 10월 종료료 목표 분주히 일정을 소화 중이다.

최근 무더운 날씨에 주중 경기까지 3일 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홉스퍼와 맞서는 팀 K리그 사령탑인 김상식 전북현대 감독.

격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선수들이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와중에 토트넘의 방한으로 친선 경기가 예고돼 팀 K리그에 차출된 선수들은 체력 인체에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형평성을 고려해 인기 투표가 아닌 K리그 12개 팀당 2명씩 차출해 24명의 선수 명단을 구성했다.

최근 몰옴 기량을 자랑 중인 이승우(수원FC)를 비롯해 조규성, 권창훈(이상 김천), 김진수(전북), 조현우(울산) 등 국가대표 선

수들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평소 철정한 사이로 알려진 김상식 감독과 김도균 감독의 입담 대결도 이어졌다.

김도균 감독이 “(전북의 우승 경쟁 팀인) 울산 선수들을 많이 뛰게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상식 감독은 “(수원FC 선수인) 이승우는 80분 이상 뛰게 하겠다. 충분히 유럽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 토트넘에 보내자”고 반박했다.

한편 팀 K리그는 오는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뉴시스

전국태권도선수권 ‘대장정’

태권도원 · 무주국민체육센터 등서 오늘부터 10일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승환 이하 재단은 참가규모 5,000여명의 대규모 태권도인들의 축제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오는 8일을 시작으로 10일간의 대장정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위한 태권도원 전역의 체계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전라북도태권도협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3,000여명의 선수와 900여명의 지도자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겨루기 부문(8~15일)은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품새 부문(16~17일)은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관중 입장이 가능해 약 1,000여명의 선수 가족·지인은 물론 태권도원 관람객들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생생한 현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올해 펼쳐지는 대회들은 태권도 유관단체와의 협업으로 만들어낸 전국대회로 태권도선수들의 기량을 키워줄 큰 무대들이 될 것”이라며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국내외 경기 지원과 방문객들로 언제나 생동감 넘치는 태권도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은 참가규모 5,000여명의 대규모 태권도인들의 축제 제8회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가 8일을 시작으로 10일간의 대장정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경기 모습.

하키 남녀 주니어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지훈련 ‘구슬담’

정성주 김제시장, 선수단 격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국제 하키전용구장과 시민운동장에서 하계 전지훈련중인 하키 주니어 국가대표 후보선수들에 대해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찾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키 주니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 전지훈련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7일간 실시되고 있으며 남·녀 선수 각 24명과 지도자 각 3명 등 총 54명으로 구성됐다.

국가대표급 기량을 갖춘 선수단이 지역에 전지훈련을 오는 흔치 않은 상황에서 인근 순천항대, 조선대를 비롯한 타 시도 하키 선수단과의 친선경기가 연일 이어지는 등 현여를 땀방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실력향상을 위해 구슬



정성주 김제시장이 국제 하키전용구장과 시민운동장에서 하계 전지훈련중인 하키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김제시는 김제중, 구)김제여중, 김제고, 김제여고에서 하키 꿈나무와 우수 대표선수들을 다수 배출하였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하키 전국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적극 유치로 55년 전통의 하키 명문 고장으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은 “하키 명문 고장 방문을 환영하며 우수한 엘리트 선수들이 우리 지역 전지훈련으로 많은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김제시가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의 최적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현대 쿠니모토, K리그 ‘6월의 선수’ 후보에 올라

강원 김대원 · 수원FC 이승우 · 서울 조영욱 등과 경쟁... 투표 10일 자정까지

프로축구 K리그 6월 최고의 선수 후보로 김대원(강원), 이승우(수원FC), 조영욱(서울), 쿠니모토(전북)가 경쟁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EA K리그 이달의 선수상 6월 후보로 이들 4명이 올랐다고 밝혔다.

강원FC 김대원은 3경기에서 3골 2도움으로 5개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원FC 이승우는 6월에 치른 3경기에서 모두 골을 넣어 팀의 전승을 이끌었다.

FC서울 조영욱은 수원 삼성과 ‘슈퍼매치’에

서 결승골을 기록했고, 전북 현대 쿠니모토는 울산 현대와 ‘현대기 다비’에서 멀티골로 3-1 승리에 기여했다.

이달의 선수는 연맹 TSG기술위원회의 1차 투표(60%)로 4명의 후보를 정한 뒤 K리그 팬 투표(25%)와 EA스포츠 FIFA 온라인4 유저 투표(15%) 결과를 합산해 정한다.

투표는 10일 자정까지 K리그 이벤트 페이지(event.league.com)에서 진행된다. 수상자엔 트로피와 이번 시즌 유니폼에 이달의 선수상 패치를 부착한다. /뉴시스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